

탐의 진화

㉑ 앙코르의 유적(1)

'앙코르'라는 말은 범어로 도시를 뜻하는 '나가라(Nagara)에서 노코르(Nokor)-앙코르(Angkor) - 앙코르(Angkor)로 음운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도시라는 의미의 앙코르는 약 천이백년전에 크메르인에 의하여 수백 개의 사원과 탑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긴 세월동안 역사에서 사라져 밀림 속에 방치되었다가 근세에 알려져 앙코르 왓, 프놈바게입, 앙코르 톨, 바이온, 바푸온, 코끼리 테라스, 문동왕 테라스 등 수십 개의 유적이 현재 복원되었거나 복원 중에 있다.

앙코르의 유적은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으나, 건설 주체자의 신앙 형태에 따라 다양한 사상으로 표출되었다. 왕들의 개인적 신앙에 따라 브라만 사상에 입각한 사원, 왕궁, 무덤 등의 용도로 조성되었으며, 때로는 불교 신앙에 입각하여 사찰과 불탑의 용도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선대왕이 브라만교 사원으로 조성한 것을 후대왕은 불교사원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또 다시 힌두교 사원으로 사용한 예도 있다.

세계 7대불가사의의 중의 하나로서 표현되는 '앙코르 왓'을 비롯한 위대하고 거룩한 앙코르의 많은 유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앙코르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간략한 앙코르의 역사를 살펴보자.

802년에 자야바르만 2세는 앙코르 왕국을 건설하고, 877년 인드라바르만 1세는 자신과 부모를 위한 사원과 브라만 신화의 상징적 치수의 의미를 가진 저수지 등 3대 건축업을 완성한다. 889년 야소바르만 1세는 인드라타타카 저수지의 인공섬에 톨레이를 건립하고, 1011년에는 철권통치로 절대 왕권 시기를 시작한 수리아바르만 1세에 의하여 앙코르 톨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033년에는 더욱 강력한 중앙통치를 실시한 수리아바르만 2세에 의하여 앙코르 왓 건립이 시작 되었다. 1181년에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자야바르만 7세가 즉위하여 마침내 앙코르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여 앙코르 톨을 구축하고, 바이온 사원을 건립한다. 또한 그는 지극한 효성을 발휘하여, 어머니를 위한 따프롬, 아버지를 위한 프레이안 사원을 조성하지만 그 이후 앙코르는 퇴락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자야바르만 8세는 힌두교를 신봉하여 집권하면서 앙코르 톨 일대와 따프롬 등의 모든 불상을 훼손하고 불교관련 부조를 파괴한다. 자야바르만 8세의 악업에 대한 과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1431년 앙코르 왕국은 아우타야 왕국에 의해 멸망하며, 수십 만에 달하던 앙코르인들이 1년 만에 역사 속에서 모두 사라져 훗날에 대한 과보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한편 앙코르 왕국의 왕들 중에는 자야(승리), 인드라(전정신)등의 단어 뒤에 '바르만'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데 이는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바르만들은 앙코르에서 자신의 신앙적 표현의 건축물을 경장하며 조성하였다.

1) 앙코르 왓(Angkor Wat) (사진1)

'도시의 절'이라는 의미의 앙코르 왓은 수리바르만 2세에 의하여 37년 동안 약 2만 5천명이 동원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설되어 '비슈누' 신에게 헌정되었다. 이 사원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이것은 해가 지는 서쪽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고대 인도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불교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즉 사후세계의 극락에 있다는 아마타 사상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앙코르 왓은 수리바르만 2세의 사후세계를 위한 영묘적 사원임을 짐작케 한다. 또한 중국의 불탑사상을 알아볼 때 자세히 거론되었지만 '황제가 곧 부처님'이라는 '황즉불' 사상이나 '왕즉불' 사상처럼 황제나 왕의 유품을 모신 영묘를 탑으로 표현한 예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바르만들은 사후에 힌두교의 여러 신과 동일시되는 관습에 따라 왕궁이나 무덤 등이 탑으로 표현되고 인식 될 수 있었다.

앙코르 왓의 전체적인 구조는 힌두교와 불교의 우주관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고해의 바다를 상징하는 길이 3.6km의 직사각형 해자에 둘러 싸여 있는 중앙의 높은 탑은 우주 중심인 메루(Meru)산, 즉 수미산이며 주위에 있는 4개의 탑은 주변의 봉우리들을 상징한다. 외벽은 세상 끝에 둘러쳐진 산을 의미하고 있다.

1200년 전 크메르인이 조성

브라만, 불교 등 다양한 사상 반영

세계 7대불가사의의 중의 하나

자야바르만 8세 불교배척 후

1431년 앙코르왕국 멸망하고

1년만에 수십만 앙코르인들 사라져

'앙코르 왓'은 '도시의 절'이란 뜻

37년 건설에 2만5천명 동원

서쪽 향하는 건 '서방정토'와 상통

해자를 건너기 위해서는 나가(Naga)간간을 따라 250m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나가는 물에 사는 용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에 가려면 반드시 '반야용선'이라는 용이 이끄는 배를 타야지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사찰에서 부처님을 모신 전각에는 황룡, 청룡 등 여러 용을 조성한 것이다. 앙코르 왓의 구조에서도 해자안의 중심건물이 극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를 조각하고 반야교가 있는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앙코르 왓트는 석조 건축물로 만들어진 지상에 있는 우주의 모형이다. 따라서 앙코르와트가 지니는 신앙적 의미는 3층 중앙 탑들이 있는 곳은 천상계, 2층은 인간계, 그리고 1층은 축생계를 의미한다. 각 층은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1층 회랑에는 아름답고 정교하고 다양한 조각들이 부조되어 있다. 1층 회랑의 조각은 2m 높이에 길이는 약 600m에 달한다.

부조의 내용은 비슈누의 찬양과 수리아바르만 2세의 전정의 당위성을 표현함으로써 본인인 비슈누의



<사진 1> '도시의 절'이라는 의미의 앙코르 왓은 수리바르만 2세에 의하여 37년 동안 약 2만 5천명이 동원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설되어 '비슈누' 신에게 헌정되었다.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방에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모두 여덟 가지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동쪽 출입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에 '우유의 바다 짓기'와 '악마에 대한 비슈누의 승리' 주 출입구인 서쪽 중앙 문을 기준으로 '랑카의 전투 장면'과 '쿠르세트라 전투장면', 남쪽의 '천국과 지옥', '역사적 행렬도', 북쪽의 '신들과 악마의 전투', '악마 왕 바나에 대한 크리슈나의 승리', 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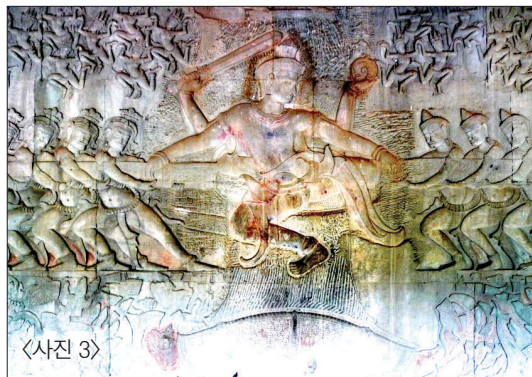
지면의 한계로 동쪽의 '우유의 바다 짓기' 한 가지 예만 들어 알아보기로 한다. '우유의 바다 짓기'는 비슈누 신에 대한 칭송의 일화이다. 비슈누 신은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신앙하는 신으로 라마와 크리슈나,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믿는다.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타푸루나(Bhagavata-Purana)>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옛날에 신들과 악마는 배다른 이복형제였다. 악마가 형이고 신들이 동생이었다. 그들에게도 알 수 없는 죽음의 세계는 두려움의 전각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한 신들은 메루산에 살고 있는 창조주 브라흐마를 찾아가 죽음을 극복할 도움을 청했다. 브라흐마 신은 "너희들은 비슈누 신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 하니 신들은 비슈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비슈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신들은 가서 우유의 바다를 휘저어 거기서 나온 불사의 감로수를 마시도록 하라! 그것을 마신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비슈누신이 말했던 우유의 바다를 휘저기 위해서는 매우 큰 막대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우유의 바다가 너무 커서 그러한 막대기를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비슈누는 그들에게 만다라 산을 옮겨다 뒤집어 바다를 휘저으라고 충고했다. ...<중략>...



<사진 2> 앙코르왓 부조, 신들이 우유바다를 짓기 위해 긴 끈으로 수미산을 끌고 있다.



<사진 3> 비슈누가 신과 악마를 지휘하고 있는 모습

결국 독수리인 가루다에 의해 산은 무사히 우유의 바다로 옮겨졌다. 옮겨진 산을 가지고 우유의 바다를 짓기 위해서는 매우 긴 끈이 필요했다.<사진2> 그러자 비슈누신은 커다란 뱀인 바스키에게 그 산을 둘러싸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산을 둘러싼 뱀은 곧 바다에 빠져 버렸다. 그러자 비슈누 신은 자신이 직접 거북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 산을 등위에 올려놓고 신들과 신들의 이복형인 악마들로 하여금 바다를 휘저도록 하였다. 천년이나 휘저는 끝에 우유의 바다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맨처음 흘러나온 것은 불사의 감로수가 아니라 바다의 불순물이 모여진 죽음의 독약이었다. 이 독약은 결국 파괴의 신인 시바가 스스로 마심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러나 시바도 그것을 마시면 죽기 때문에 그는 삼키지 않고 목에 그대로 저장해 놓았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시바의 목부분은 파랗게 물들어 있다. 계속 바다를 휘저은 신들과 악마들은 끈질기게 기다렸다.

마침내 아름다운 암소 수리바가 나타났다. 수리바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가 되었다. 다음에는 쫓겨온 가루다의 여신 비루나가 나타났다. 악마들은 그녀를 손에 넣으려 했으나 그녀는 신들을 더 좋아했다. 신들을 향한 제사의식에 술을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략>...

신들의 의사인 단원타리가 나타나 때 들고 있던 병에는 신과 악마가 수천년 동안 그렇게 갈망하던 불사의 감로수가 들어 있었다. 신과 악마들은 공평하게 나누자는 약속을 맹약한 채 그들은 싸움을 벌였고 마침내 악마들이 불사의 감로수를 차지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이 그것을 마신다면 온 세상이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비슈누신은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 모하니로 변화시켜 싸우고 있는 악마들에게 가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다.<사진3>

악마들은 아름다운 모하니의 모습에 넘어가 그 계안을 승락했다. 모하니는 신들과 악마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신들부터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악마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속아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악마들은 곧 그녀가 자신들에게도 불사의 감로수를 나누어 주리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그때 악마들 중의 하나인 라후가 신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가 자기 차례가 되어 감로수를 마시려 할 때 태양의 신인 수라와 달의 신인 소마가 제발 비슈누신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비슈누는 자신의 무기인 원반으로 그의 목을 베어 버렸다. 그러나 라후는 불사의 감로수를 삼키지는 않았으나 입으로 마셨기에 얼굴부분은 죽지 않았다. 그는 해와 달을 용서할 수 없었다. 라후는 해와 달을 삼켜 버리려고 계속 쫓아 다녔다. 해를 삼키자 너무 뜨거워서, 달을 삼키자 너무 차가워서 곧 뱉어버렸지만 라후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일식, 월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도인들은 말한다. 악마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신들 모두가 불사의 감로수를 마신 후였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들은 힘이 약해도 악마에게 이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창조된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 다른 생명체들을 지배하면서 그들로 부터 숭배와 공물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49m에 달하는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다음 호에는 앙코르의 불교유적이 있는 불탑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글·우인보

Advertisement for '적하수도 된 장' (Soaked Beans) and '적하수도 고추장' (Soaked Soybean Paste). It features images of beans and soybean paste, and list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ngnongjang.

Advertisement for '민속죽염' (Folk Herbal Tea). It includes a list of benefits, a price table for various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SJY.

Advertisement for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5권' (Baroboin Sunmun Eulsong Volume 25). It features a book cover, a list of auth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Zen Paradise.